

研究論文

#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과 탈식민성\*

이 선 이\*\*

---

I. 한국 근대성 논의에 있어서 탈식민성의 문제	III. 맺음말 <참고문헌>
II. 한국 근대시의 주체 형성 양상과 탈식민성	<국문요약>

---

## I. 한국 근대성 논의에 있어서 탈식민성의 문제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연구는 근대에 대한 인식방식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는 그것을 하나의 인식론적 가치척도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역사적 과정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평가에 있어서도 사뭇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근대문학에 대한 연구 또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상이한 이해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근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대별된다. 먼저 근대를 하나의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설정해 두고 이 기준에 대한 도달 정도 혹은 완성 정도를 측정하는 논의가 그 하나이다. 이때 근대라는 의미는 정치적인 민주제와 경제적인 자본제, 철학적 혹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의 이성적 합리성을 얼마나 달성했느냐는 측면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개념이다. 그러나 근대를 이렇게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지향으로 설정해 둘 경우, 여기에는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3-A00115).  
 \*\* 경희대 한국어학과 조교수, 현대문화 전공(budatree@khu.ac.kr).

자연스럽게 강요된 위계질서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즉 서구사회가 근대의 성취도에 있어서 언제나 우위를 점유함에 따라 비서구 지역의 문화는 향서구적인 혹은 서구보편주의에 대한 모방과 동경의 미망에 사로잡혀 열등과 답습의 길을 스스로 노정하게 마련이다. 서구가 하나의 정전(canon) 과 보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비서구 지역은 외전과 특수로 규정되고, 비서구 지역의 문화는 전형으로 내면화된 서구적 근대모형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근대를 구축하려는 모방욕망에 시달리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근대 개념은 제국주의와 운명을 함께 했는데, 이러한 이념형으로서의 근대는 실제로 식민지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의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근대를 파악하는 방식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역사의 계기들을 하나의 보편에 수렴함에 따라 생동하는 역사의 구체를 억압하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근대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가 확보되고 이들 자료를 통해 근대가 조금씩 그 실상을 드러냄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접근과 반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른바 성찰적 근대 논의가 그것이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비판이론의 연장선상에 선 성찰적 근대 논의는 근대가 야기한 다양 다기한 문제들을 되짚어 보며, 근대가 야기한 문제를 반성하는 가운데 근대성의 의미를 평가하고, 그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탈근대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 관점은 근대적 기획이 갖는 문제점들을 근대적인 기획에서 재반성하고, 근대적인 인식의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환경, 여성, 욕망, 평화, 감성, 비서구 등은 이러한 성찰적 근대성이 새롭게 발견한 혹은 복원한 영역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근대 논의는 근대의 해방적 관점을 보다 정교하게 추구한 결과로서 근대를 추동한 합리적 이성의 지평 안에서 문제적인 요인들을 극복하자는 논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논의의 진행과정 상에서 지나치게 근대를 비판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극복의 대상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또 다른 단선적인 인식, 전근대에 대한 근대적인 것의 우위라는 발전주의적인 논의로 귀결되는 한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출된 논의로서 복수의 근대인식 논의를 꼽을 수 있다.<sup>1)</sup> 이는 근대를 하나의 역사적인 실체로 인정하고 이를 다양한 차이들의 생성의 장으로 인식하자는 근대인

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근대를 동일한 가치, 단일한 시간성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벗어나, 근대를 복잡한 가능성들의 공존으로 보고 이들이 각각의 가능성을 생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지는 생성적 근대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 논의는 주체와 타자, 중심과 주변, 서구와 비서구, 서양과 동양 등으로 나누어지는 이항대립적 구도를 보다 전략적으로 교란하고 복수의 근대구축을 실천함으로써, 비서구 지역의 주체적인 근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논의가 아닐 수 없다. 탈식민성에 대한 주목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엄밀하게 보면 탈식민주의의 출발은 성찰적 근대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생성적인 근대 논의와 결합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 근대문학의 경우, 일제 식민지 경험과 해방 식민지 경험의 잔존 등으로 인해 식민 상황에 대한 자각이 근대문학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형성하는 동인으로 자리해 왔다. 따라서 우리의 근대문학에 있어서 근대성과 탈식민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성을 갖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탈식민주의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식민지 경험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탈근대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 근대성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탈근대성에 대한 인식은 식민적인 근대성의 극복이라는 이론적인 노력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우리 근대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적 장치로 그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에 이루어진 논의들, 즉 이식문학론과 전통단절론 혹은 이와는 상반된 자생적 근대론 혹은 내재적 발전론 모두에서 일정한 논리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한국 근대문학이 지닌 실상을 어떠한 보편주의로 환원시키지 말고 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탈식민주의적 인식은 유효한 관점이 될 수 있다.

탈식민주의<sup>2)</sup>는 제국주의와 여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근대적 기획에 저항하면서 제국주의적 식민현실에 반응하는 다양한 양상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가운데 문화의 탈식민화를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탈식민

1) 강내희, 「한국 근대성의 문제와 탈근대화」, 『문화과학』, 22호(2000년 여름호) 참조

2) 한국에서의 탈식민주의의 이론과 비평의 번역과정과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에서의 탈식민주의의 연구사를 검토한 글로는 고희철, 「한국문학의 탈식민주의 비평·연구사적 검토」, 『한국문학논총』, 제30집(2002), 409-435 쪽 참조

주의에서는 제국주의적 언술을 전복시키는 문화전략으로 탈식민화(Decolonization), 폐기(Abrogation), 전유(Appropriation), 되받아쓰기(Write Back) 등을 사용한다.<sup>3)</sup> 이러한 전략들을 그대로 우리의 근대문학에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탈식민주의가 복수의 근대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근대인식의 방식이 공존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둔다는 맥락에서, 우리의 식민지 근대성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sup>4)</sup> 한국 근대시로 그 적용범위를 좁혀보면, 전통과 근대가 상호 충돌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경험하며 한국의 근대시인들은 어떻게 근대적인 주체를 형성했으며 이것이 어떤 언술방식으로 표출되었는가 하는 점은 우리의 근대성을 읽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근대시사에 있어서 근대성 논의는 주로 이상, 정지용, 김기림, 임화 등에 집중되어 왔다. 개별 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내용과 형식, 정신과 기법에 있어서 근대성을 어떻게 표출해 왔는가 하는 점이 이들 시인을 중심으로 유독 강조되어 온 것은, 일차적으로 이들의 시적 성과가 근대시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소월, 윤동주, 한용운 등의 시인에 비해 이들은 근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미적 대응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들의 작업을 서구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함량미달이나 함량과잉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향서구적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과 좌절로 읽어내는 것은 단일한 근대 보편주의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식민적 자기인식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시사에서 근대시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이상과 정지용의 시를 통해 우리의 근대시가 어떻게 근대를 인식했으며 여기에 탈식민적인 인식이 드러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sup>5)</sup> 특히 여기에서는 개별 시인이 근대적인 주체를 구성해 가는 양상을 중심으로 근대시에서 근대성과 탈식민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근대시를 안과 밖에서 동시에 사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이석호(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민음사, 1996) 참조

4) 지금의 탈식민주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론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방식, 그 자체가 다분히 제국주의적 방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5) 이상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논의할 때 가장 빈번히 논의 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정지용 또한 한국시사에서 근대시의 출발을 보여준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왜냐하면 탈식민주의에 입각한 읽기는 내부적으로는 식민지 타자로 전락한 우리의 정체성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다시금 탈정체화 시키는 과정이며,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근대적인 주체를 타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탈정체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적인 것의 이입과 전통적인 것이 뒤섞이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근대시의 혼종의 미학과 전유의 미학이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어진 근대에서 만들어가는 근대로의 이행<sup>6)</sup>에 주목하면서 한국 근대시를 주체이면서 동시에 타자로 읽어내는 작업이라 하겠다.

## II. 한국 근대시의 주체 형성 양상과 탈식민성

탈식민성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자신의 역사적 경험에 충실한 주체를 정립해 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주체 형성의 양상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시인이 어떻게 주체를 정립해 나가느냐하는 문제는 세계관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계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공간과 시간 인식을 통해 주체 형성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존재를 인식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자아를 정립해 나간다. 특히 탈식민의 문제를 논의할 때 시공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역사적 단계인 근대사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근대사회는 시간을 통한 규율권력을 효과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근대적인 주체를 탄생시켜 나갔으며, 시각을 모든 감각의 우위에 배치함으로써 문화적 재현으로서의 공간(place)을 통해 근대적인 주체를 탄생시켜 나갔다. 따라서 시계와 원근법은 과학과 이성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명분 아래 근대적 삶을 규율하고 식민화한 핵심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과 공간은 식민주의적 가치가 표상되는 구체적인 장소로서 일상적 삶 속으로 파고들어 다양한 문화가 상충하는 갈등의 실천적 현장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공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근대시의 근대적 주체 형성 양상

---

6) 전규찬, 『포스트시대의 문화정치』(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90 쪽

을 살피고자 한다. 우리의 근대시에는 전통적인 주체에서 근대적인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근대, 근대, 탈근대적인 요소들이 혼종적 성격<sup>7)</sup>을 보이며 근대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 여기에서 혼종성은 서구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역사적 발전 단계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일탈한다. 따라서 근대시에 나타난 근대적 주체는 획일화된 단일 근대가 아닌 복수의 근대형성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조망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근대적인 주체는 어떻게 전통적이면서도 근대적인 것, 탈근대적인 것들을 자신의 심상지도 속에 새겨 나갔을까? 또한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서로 뒤섞이고 상충하는 이질 혼재성을 이루며 식민지 근대<sup>8)</sup> 주체를 형성해 왔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 여기에서는 기존의 미적 근대성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는 주체의 분열(fragmentation of subject)이나 주체의 환멸(disillusionment of subject)을 탈식민적 관점에서 재해석 하고자 한다.<sup>9)</sup>

분열(分裂)이란 병적으로 정신이 일그러진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용어로서 비정상적 정서의 표현 및 사고형태를 말한다. 미적 근대성 논의에서 이러한 주체의 분열은 타자인 서구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주체의 타자화에 대한 결과로서 현실과 이상, 의식과 무의식이 상충하며 비이성적 언술이나 광기 등이 드러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근대주체의 한 양상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탈식민적 관점에서 볼 때, 분열적 주체는 스스로 주체로서의 자각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합리적 이성을 포기하고 비정상적인 분열증을 통해 근대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가 근대에 압도당한 불안의식과 절망의식의 표출이라면 후자는 근대의식의 전유와 유희를 통한 탈식민주의적 인식

7) 박주식은 탈식민주의 이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혼종성(hybridity)이야말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문화의 충돌과 다문화화, 민족과 토착성, 정치성과 텍스트성, 타자의 인식과 재현, 정체성과 차이, 주체와 의미 형성, 언어와 글쓰기와 같은 광범위한 주체들이 서로 교차하는 탈식민주의에서 이론적 위상을 대변하는 용어로 보고 있다.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 고부웅(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문학과지성사, 2003).

8) 강내희는 우리의 근대성이 ‘식민지 정복과 그에 대한 지배를 현실로 가지며 식민지인은 반식민지 투쟁을 통한 또 다른 근대성을 형성해나간다’는 판단 하에 ‘식민지 근대성’ 테제를 통해 우리에게 근대성이란 이념이면서 동시에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근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강내희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과 충격의 번역」, 『문화과학』, 제31호(2002, 가을호) 참조.

9) 근대적 주체의 분열적 정서와 환멸적 정서에 대해서는 김윤식, 서준섭, 문홍술 등 많은 연구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을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주체는 분열된 것이 아니라 분열 자체를 주체의 본질로 삼음으로써 분열적 주체로 존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열적 주체는 분열 속에서 스스로를 주체로 정립하고 이를 통해 타자를 인식함으로써, 서구적 근대에 전복과 전유의 방식으로 저항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환멸(幻滅)이란 일반적으로 이상(理想)이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좌절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 허무함을 의미한다. 미적 근대성 논의에서 이러한 환멸의 정서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근대적 지향이 좌절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한국 근대시사에게 환멸적 자의식은 식민지라는 부정한 현실에 대한 모멸감의 표출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탈식민적 관점에서 볼 때, 환멸적 주체란 서구적 근대화가 제국주의와 동일하다는 근대의 실상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분노와 저항의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환멸적 주체는 서구적 문화가 전해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적 인식과 주관적 내면화 과정을 통해 서구적 근대와 다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상과 정지용의 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분열적 주체와 탈식민성: 이상의 경우

이상(李箱, 1910~1937)은 근대적 삶의 불안의식과 개인의 단절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낸 최초의 진정한 근대적 시인으로 평가받아 왔다.<sup>10)</sup> 이러한 시사적 평가는 극단적인 실험정신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아(自我)의 파산(11)이라는 자기 폐쇄를 기법화한 시인이라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상의 시가 반응한 사회는 일제강점하의 식민지 근대사회로서 서구적 근대가치가 제국주의적 형식으로 유입되던 시기이다. 서구적 근대성의 핵심적인 특징인 합리적 이성과 과학주의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제국주의를 강요하며 식민현실을 무의식적으로 주입해 갔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는 이상의 시세계가 보편적 차원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력한 반면,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식민적 주체로서의

10) 이러한 평가는 본격적인 이상 연구가 시작된 195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견지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11)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193 쪽

자기인식과는 밀접히 연관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그의 시세계가 보인 미적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즉 그의 시가 보이는 불안의식과 단절의식은 카프카의 문학에서도 발견되듯이 근대인 일반이 지닌 정서의 표출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이상의 시가 얼마나 충실하게 서구적인 의미의 미적 근대성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의 준거로 삼고 있어 여전히 식민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평가는 이상을 단지 모더니스트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함으로써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우리의 역사적 특수성이 어떻게 다른 근대 주체를 형성해 나갔는가를 적극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상 시인에 대한 평가는 많은 부분에서 지나치게 모더니스트로만 이해함으로써 잘못 인식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지인들의 평가는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2)</sup>

이상의 시세계는 크게 보면 근대적 사유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와 해체하는 자아에 대한 성찰이 반복적으로 변주된다. 이상이 해체하고자 한 세계는 합리적 이성과 과학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사유방식이었으며, 이상이 성찰하고자 한 자아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었다. 이 둘은 이상의 시세계에서 세계인식의 근간을 형성한다. 식민지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자아성찰만이 있었다면 불안과 우울의 정서가 주가 될 수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상에게는 근대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그의 시적 기법이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난해함으로 위장한 그의 시적 문면에는 풍부한 해학이 깃들여 있다. 그렇다면 근대적 개인의 불안의식을 드러낸 시인이 이처럼 명징한 해학과 풍자를 동시에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불안과 우울의 정서와 해학과 풍자의 정신의 양립은 이상 시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원동력인 근대적 이성에 대한 의도적인 해체를 위해 비현실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때로는 광기에 어린 시어를 동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아성찰을 견지해 나간 시인이 어떻게 시적 주체를 형성

12) 그의 아내와 동생, 그리고 친구들의 몇몇 증언에 의하면 시인 이상은 한복을 즐겨 입고 주색에 밝은 적이 없었으며 학비 마련을 위해 빵을 파는 진실한 생활인이었다. 김유중·김주현 『그리운 이름, 이상』(지식산업사, 2004) 참조



해 나갔는가를 살펴보자.

이상의 시세계에 있어서 시적 주체는 ‘싸움하는사람은즉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시 「詩第三號」)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분열 그 자체를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상의 시는 이러한 분열을 통해 근대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며 식민지 타자로 전락한 자신의 타자성을 전략적으로 전복시킨다. 실제로 이상은 경성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다녔다는 전기적 사실만으로도 유년기에 농경사회적 경험을 가진 동시대 대부분의 시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갖는다. 그는 당대의 다른 시인들에 비해 식민지적 근대성을 일찍부터 경험하며 성장한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예술적 충동을 억제하고 건축을 전공해야 했던 이상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며 건축되면 위에서 기호화되는 관념적 세계와 식민지 현실을 중첩시키며 독특한 시세계를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시가 ‘오감도’라 할 수 있다

13인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適當하오)

第1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2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3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4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5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6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7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8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9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10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11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12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13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13人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事情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좋소  
그중에2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좋소  
그중에2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좋소  
그중에1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適當하오)  
13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여도좋소

- 시 「오감도 시제1호」 전문<sup>13)</sup> -

이상의 시세계에서 근대적인 공간은 주로 도로, 백화점 건축물 등이 소재화 되고 있다. 이상이 일본어로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시기가 1931년이며 시 「오감도」를 발표한 시기는 1934년이었다.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정책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방사상 도로망이 계획되고 식민지 경성이 건설되던 때이다. ‘도로’로 상징되는 식민지 건설은 근대의 속도와 문명의 위력을 과시하며 식민지 조선인에게 심리적 규율권력으로 기능한 바 크다. 도로가 근대적 질주의 욕망을 가시화한 공간이라면, 이 공간을 조망하고 있는 시적 자아는 13인의 ‘아해’가 질주하는 모습 속에서 근대정신을 간파하며 동시에 이로 인한 위압적인 공포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공포스러운 현실을 분열적인 진술들, 예를 들면 ‘길은막다른골목이適當하오’와 ‘길은뚫린골목이라도適當하오’나 ‘13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와 ‘13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여도좋소’ 등의 분열적 진술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조롱하고 고발한다. 이상의 시에서 분열적 주체는 현실과의 일정한 거리갓기를 위한 시적 전략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상의 시에서 공간은 육체에 대한 인식과 깊이 연관된다.<sup>14)</sup> 그의 시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매춘여성에 대한, 이는 곧잘 아내로 치환되기도 하는데,

---

13) 인용한 이상의 시는 이승훈(편), 『이상문학전집』(문학사상사, 1989)를 기본 자료로 한다.  
14)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조해욱, 『이상 시의 근대성 연구: 육체의식을 중심으로』(소명, 2001)가 있다

혐오의식과 좌절감은 근대적인 도시에 육체성을 부여하는 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실제로 이상의 시세계에서 ‘폐병 과’ 유곽 은 근대도시와 은유적인 등가를 이루며 근대 자체에 대한 인식방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본에서 식민정책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니토베 이나조오가 식민정책을 병리학으로<sup>15)</sup> 평가한 부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화려한 도시와 그 이면의 부패상은 보이지 않지만 병들어가는 폐병 앓는 시적 자아의 육체와 닮아 있다. 또한 도시는 교환가치에 기댄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성의 상품화로 이어지는 현장인 유곽과 동의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편들에서 지배적인 시적 정서는 근대적인 공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시에서 시적 자아가 인식하는 근대적 공간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는 시 「街外街傳」을 살펴보자.

喧噪 때문에磨滅되는몸이다. 모두少年이라고들그리는데老翁인氣色이 많다. 酷刑에셋기워서算盤처럼資格너머로튀어오르기 쉽다. 그러니까陸橋위에서도 하나의편안한大陸을내려다보고 僅僅히산다. 동갑네가시시거리며떼를지어踏橋한다. 그렇지않아도陸橋는또月光으로充分히 天秤처럼제무게에끄덕인다. 타인의그림자는위선롭다. 微微한그림자들이얼떨김에모조리앉아버린다 櫻桃가진다. 種子도磨滅한다. 偵探도호지무지 - 있어야움을拍手가어췌서없느냐 아마 아버지를反逆가싶다. 默默地 - 企圖를 封鎖한체하고말을하면사투리다. 아니 - 이 無言이喧噪의사투리리라. 쏟으라는노릇 - 날카로운 身端이상성한陸橋 그중甚한구석을診斷하듯이어루만지기만한다. 나날이씩으면서가리치는指向으로 奇跡히골목이뚫렸다. 썩는것들이落差나며골목으로몰린다. 골목안에는 侈奢스러워보이는문이있다. 문안에는金니가있다. 金니안에는추잡한혀가달린 肺患이있다. 오-오- 들어가면나오지못하는타입깊이가臟腑를닮는다. 그위로짜바뀐구두가비칠거린다. 어느늪이어느아랫배를알게하는 것이다. 질다...(중략)...

여기있는것들은모두가그龐大한房을쓸어생긴답답한쓰레기다. 落雷심한그龐大한房에는어디로선가窒息한비둘기만한까마귀한마리가날아들어왔다. 그러니까 剛하던것들이疫馬잡듯픽픽쓰러지면서房은금시爆發할만큼精潔하다. 反對로여기있는것들은통요사이의쓰레기다.

15) 강상중, 이경덕·임성모(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100쪽.

간다. 「孫子」도搭載한客車가房을避하나보다 速記를펴놓은床几위에알뜰한접시가있고접시위 에삶은鷄卵한개-포 크로터뜨린노란자위겨드랑이에서난데없이孵化하는勳章型鳥類-푸드덕거리는바람에方眼紙가찢어지고氷原위에座標잃은符牒떼가亂舞한다. 卷煙에피가문고그날밤에 遊廓도뒀다 繁殖한거짓天使들이하늘을가리고濫帶로진낸다. 그러나여기있는것들은뜨뜻해지면서한꺼번에들떠든다. 龍大한房은속으로끓아서壁紙가가렵다. 쓰레기가막붙는다

- 시 「가외가전(街外街傳)」 부분-

이 시의 시적 자아는 육교 위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제목인 ‘가외가전(街外街傳)’이란 일종의 역설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육교는 근대 도시를 성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시적 자아는 ‘근근히 사는 자신의 삶을 반추한다. 또한 근대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그 도시성을 상징하는 육교 위에서 시적 자아는 ‘골목안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응시한다. 즉 시적 자아는 근대화된 도시공간의 한 중심과 동시에 ‘골목안의 병든 삶을 공유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적 자아는 ‘쓰레기’가 튀구는 ‘여기’에서 ‘여기’와 병치되는 ‘폭발할만큼 정갈한 공간이자 동시에 ‘속으로 끓아서 벽지가 가려’운 공간인 ‘龍大한 房’을 응시한다. 이 이중적 공간인식은 시적 자아가 갖고 있는 질병과 동일한 형식을 보인다. 즉 시적 자아는 각혈로 표현되는 폐병의 육체를 가졌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 이는 화려한 외면과는 달리 ‘골목안은 끓아가는 공간인 근대적인 도시의 이중성과 합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적 자아는 근대적인 도시공간 안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도시 밖의 공간을 탐색하는 비판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이처럼 이상 시에서 주체는 가장 근대적인 방식으로 근대를 부정하고 야유하고 조롱하면서, 가장 근대적이고도 탈근대적인 인식을 시적으로 탐색한다. 식민적 주체는 분열적 주체를 정립하면서 서구적 근대를 타자화해 나갔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은 시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速度를調節하는날사람은나를모은다, 無數한나는말(講)하지아니한다 無數한過去를傾聽하는 現在를過去로하는것은不遠間이다, 자꾸만反復되는過去, 無數한過去를傾聽하는無數한過去, 現在는오직過去만을印刷하고過去는現在와一致

하는것은 그것들의複數의境遇에있어서도區別될 수없는것이다...(중략) ...사람은한꺼번에한번을달아나라, 最大限달아나라 사람은두번分娩되기前에 ××되기前에祖上의祖上의星雲의星雲의星雲의太初를未來에있어서보는두려움으로 하여사람은빠르게달아나는것을留保한다, 사람은달아난다 빠르게달아나서永遠에살고過去를愛撫하고過去로부터다시過去에산다, 童心이여, 童心이여, 充足될수없는永遠의童心이여.

- 시 「線에關한覺書5」 부분 -

서구적인 근대 주체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선조성에 입각하여 세계를 인식한다. 인용한 시에서 시적 자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분절적인 서구적 시간의식을 반성하며 현재의 내속에 공존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근대적인 시간의식의 거부와 반성은 ‘달아나는 것을留保하’면서 동시에 ‘最大限달아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그려진다 여기에는 근대적인 욕망과 여기에서 탈주하려는 탈근대의 욕망이 분열적 주체의 자의식으로 드러난다. 이 같은 분열상은 근대적 사유에 대한 주체의 해체가 아니라 새로운 식민적 주체를 분열적 주체를 통해 정립하고자 하는 서구적 근대 사유의 전유가 내재해 있다. 분열적 주체는 비이성적 담론을 통해 형이상학적 주체가 강요해 온 동일성의 욕망에 저항한다. 들뢰즈가 차이의 주체를 주장하면서 언급한 바처럼, 진정한 욕망이란 오이디푸스적인 거세 콤플렉스를 통해 현실원칙을 강압적으로 수락하게 만드는 표준화한 욕망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새롭게 생성되는 탈규준적 의미의 연쇄<sup>16)</sup>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상은 근대적인 속도주의에 대한 동요와 거부를 양가적으로 그의 시에 새겨 넣음으로써 분열적인 주체를 구성하고 이 시적 자아를 통해 이성중심의 근대에 저항한다. 이렇게 이상의 시세계에서 주체 형성 양상은 중심의 사유를 바꾸어 재구성하는 전유(Appropriation)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식민적 주체성을 정립해 나간다.

한편 또 다른 이상시의 중심주체인 자아성찰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상시의 기본 모티프의 하나인 ‘거울은 분열적 주체라는 이상의 주체 형성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16) Deleuze, G. · F. Gattari, 최명관(역), 『앙띠 오이디푸스』(민음사 1994) 참조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 내게 귀가있오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यो  
내握手를받을줄모르는---握手를모르는왼손잡ियो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事業에몰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反對요마는  
또꽤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診察할수없으니쩍섭섭하오

- 시 「거울」 전문

여기에서 거울은 자아와 타자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이다. 시적 자아는 타자와 ‘反對’이면서 ‘꽤답’은 모습을 하고 있다. 시적 자아에게 ‘거울 속의 나’로 인식되는 타자는 거울 밖의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존재다. 그러나 이 시에서 거울 속에 존재하는 타자는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를 가진 존재이며 시적 자아가 ‘근심하고診察할수없는’ 존재다. 식민지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시적 자아에게 자아 성찰은 이처럼 주체와 타자가 상호 부정됨으로써 전복된다. 결국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진정한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것은 거울 밖의 나뿐만 아니라 거울 속의 나도 마찬가지다. 이상은 거울 모티브를 통해 식민적 근대주체의 문제와 서구적 근대주체의 문제를 동시에 문제 삼으면서 식민적 근대 주체가 스스로를 분열함으로써 자기를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음을 명징하게 시적으로 포착해 내

고 있다. 이처럼 이상은 주체와 타자 서구와 비서구의 위상을 자아성찰을 통해 정립하고, 이 과정을 통해 식민적 근대주체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서구적인 근대주체를 전복하고 저항하며 우리의 창조적 근대주체를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분열적인 주체야말로 우리 근대시가 창출한 주체의 한 전형으로서 서구의 보편주의로 쉽게 환원되지 않으면서 탈식민의 저항성을 보이는 창조적인 에네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시세계가 보여주는 이러한 분열은 그의 시가 보편으로서의 근대에 대한 향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의 표출이나 식민현실에 대한 몰각으로 인한 과도한 지적 유희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한국적 탈식민의 한 전형을 보여주며 근대시사에 돌출한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 2. 환멸적 주체와 탈식민성: 정지용의 경우

정지용(鄭芝溶, 1902~1950)은 “우리의 시 속에 현대의 호흡과 맥박을 불어넣은 최초의 시인”이라는 평가<sup>17)</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근대시사에서 선구적으로 미적 근대성을 성취해 나간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이상의 평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서구를 하나의 정전으로 설정해 두고 여기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 시를 평가하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다. 특히 도시문명을 노래한 초기 시의 평가는 모더니즘의 기법적인 측면에만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시적 주체가 어떻게 식민 현실에 반응했는가 하는 점은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정지용 시를 전통의식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는 시인의 시 가운데 근대적인 문물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보이는 시적 미숙성을 문제 삼으면서 도시문명을 소재로한 시편들을 의도적으로 논외로 삼거나 문학 청년기의 이국취향 정도로 치부해 버리곤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이식문학론의 관점을 벗어나 주체적인 관점을 확보한다는 미덕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대시의 실상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들은 정지용의 시가 근대적 미의식을 보이는 시편들에서는 미적 함량미달을 보이지만 전통적인 미의식을 보이는 시편들에서는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적 성

17) 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김기림 전집(2)』(심설당, 1988), 62쪽

취를 보인다고 평가하며, 한국 근대시에 있어서 근대성은 젊은 시인들이 단순히 이국적 정서를 추종하고 소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평가는 한국에 있어서 근대시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 근대적인 가치와 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삶의 변화 앞에서 시인이 가지는 근대적 자의식은 한국시의 소중한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정직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초기 근대시가 미적 완성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근대에 대한 시인의 태도이자 자의식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지용의 시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기가 필요하다.

실제로 정지용의 시에 드러난 근대성의 문제는 단순히 서구적인 근대의 추수와는 맥을 달리한다. 오히려 그의 시에 나타나는 근대적인 시적 주체는 근대에 대한 환멸감을 표출함으로써 탈근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면모는 시인이 유년기를 농경사회에서 보냈다는 사실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서 자란 이상과는 달리 정지용은 근대적 경험을 십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그의 환멸의 기원은 성장배경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상이 가장 근대적인 학문인 건축학을 전공한 반면, 정지용은 문학을 전공한 점도 그가 근대에 대해 이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근원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지용의 시세계에서 근대적 주체 형성은 일본에서의 유학체험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실제 정지용의 시적 출발점은 1921년 전후의 휘문고보 재학시절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씌어진 시는 「풍랑뭉», 「향수», 「내맘에맞는이», 「산엿 색씨 들녘 사내」 등의 민요풍의 시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시편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여성화자의 어조를 중심으로 하는 감상적인 낭만성을 보인다. 물론 그의 초기 시편에서 동시적인 요소가 보여주는 형식적 완성도나 시심의 정갈함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들 시편들에는 근대적인 주체로서의 자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유학 이후에 씌어진 시편들에는 이러한 자각이 두드러진다는 점으로 볼 때, 일본 유학이 시인에게 있어 식민지 지식인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인에게 있어 근대적인 공간의 하나인 카페는 근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동시에 피식민 국가의 가난한 유학생인 자신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움거다 심은 棕櫚나무 밑에  
빛두루 손 장명등,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눔은 루바쉬카  
또 한눔은 보헤미안 넥타이  
뺏적 마른 놈이 압장을 썼다.

맘비는 뺨눈 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늬이는 불빛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 놈의 머리는 빛두른 능금  
또 한눔의 心臟은 벌레 먹은 薔薇  
제비 처럼 젖은 놈이 뛰어 간다.

『오오 패롤(鸚鵡) 서방! 꿈 이브닝』

『꿈 이브닝!』(이 친구 어떠하시오?)

鬱金香 아가씨는 이밤에도  
更紗 커-틴 밑에서 조시는구료!

나는 子爵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히여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大理石 테이블에 닳는 내뺨이 슬프구나!

오오, 異國種강아지야

내발을 빨아다오

내발을 빨아다오

- 시 「카페 프란스」 전문<sup>18)</sup> -

시적 화자가 인식하는 카페의 내부는 ‘棕欄나무’, ‘장명등 ‘更紗’, ‘大理石’, ‘異國種 강아지’가 있고, ‘루바쉬카’, ‘보헤미안 넥타이’, ‘鬱金香 아가씨’ 등의 이국적인 풍경으로 가득 찬 곳이다. 이 카페의 내부는 이국적인 풍물과 이국적인 인물들로 가득 찬 곳으로서 ‘꿈 이브닝!’이라는 외국어가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공간이다. 즉 이 공간은 마치 박래품이 가득한 낯설고 이국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동경의 공간으로 인식될 법하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무의식적인 동경에 앞서 ‘움겨다 삼았거나 ‘이국종’인 것들로 상징되는 타자화된 실체를 발견한다. 따라서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카페는 이국종인 근대의 타자성을 포착하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하는 식민적 근대 주체가 탄생하는 자궁이다. 이곳에서 시적 화자는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라는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이 단순한 탄식과 좌절 자기 비애와 연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의 마지막 연에서 ‘오오, 이국종 강아지야 내발을 빨아다오’라는 반복되는 진술은 고조되는 비애를 통어하며 ‘이국종 강아지가 시적 자아의 ‘발을 빠’는 행위를 통해 식민적 현실을 전복시킨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위로로 보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상반되게 이국종 강아지를 일본의 카페여급으로 보고 일본 식민지에 대한 저항심의 표출로 보는 것도 과도한 민족주의적 해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행위를 통해 시적 화자는 근대공간이라는 서구적인 공간에 던져진 자신의 식민적 현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현실에 환멸의 시선을 던짐으로써 식민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발을 빨아다오’라는 비일상적인 행위로 표출된 것은 아닐까.

물론 이 시의 보헤미안적인 정서가 당시 정시용의 시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기타하라 하큐슈의 영향이며, 하큐슈가 주도한 카페를 중심으로

18) 인용한 정시용의 시는 김학동(편), 『정시용전집』(민음사 1988)를 기본 자료로 한다

하는 일군의 젊은 예술가들의 집단인 「관의 회」라는 모임의 영향이라는 사실,<sup>19)</sup> 이 모임에 참가한 예술가들이 프랑스의 보헤미안의 영향 하에 있었으며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보헤미안 정서를 식민지 조선에서 온 유학생들이 답습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은 시를 정밀하게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과 보헤미안 정서의 확산으로 근대 일본시인들에게는 이국취향의 정서, 더 정확하게는 프랑스풍의 보헤미안 정서가 확산되어 있었다.<sup>20)</sup> 카페는 이러한 정서의 본거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그려지는 카페는 이러한 자유로운 예술혼이란 찾아보기 어려우며 주체할 수 없는 환멸의 정서가 전면 배치된다.

우선 시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은 익살스러운 희극적 면모를 보인다. 시적 화자는 파리의 보헤미안을 흉내 내고 있는 일본의 근대 지식인이나 혹은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식민적인 서구추수주의를 익살스럽고 희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익살과 희극의 이면에는 근대적인 주체의 식민성에 대한 환멸의 정서가 드리워져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화화의 모습이 유독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표출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카페는 서구적인 문화의 상징이면서 임노동으로 살아가는 근대적 노동문화가 정착되면서 만들어진 근대 대중문화(mass culture)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전원적인 농촌공동체 사회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시인에게 근대적인 도시 자체도 낯선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가장 근대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진 카페는 중첩된 낯섬을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새것에 대한 혹은 이국적인 정서에 대한 동경이 카페를 통해 표출될 법하다. ‘프랑스’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시인은 카페를 통해 이국적인 혹은 서구적인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식민지 유학생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근대문명이 동경과 환멸의 이중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일반적인 견해에서 더 나아가, 정지용의 시에서 근대공간은 타자로 존재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공간이자 이러한 공간을 통해 스스로의 주체 정립의 한 방식이 탄생하는 공간이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 근대적인 다방이나 카페가 인테리들의 위안소<sup>21)</sup>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

19)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역락 2002), 106-129 쪽 참조

20) 이 같은 정서는 정지용이 좋아한 시인인 萩原朔太郎의 다음과 같은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프랑스에 가고 싶어도/프랑스는 너무나 멀어/하다못해 새로운 양복이라도 입고/자유로운 여행이나 떠나볼까(시 「旅上」 부분).

21) 이상길, “‘인테리 위안소’, 혹은 식민지 공론장의 초상”, 『문화과학』, 제36호(2003) 참조

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가장 근대적인 장소에서 서구적인 근대의 타자로 전략한 자신을 인식하고 이를 희극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에 카페라는 공간이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의 시에서 이러한 환멸적 주체는 근대적인 문물이 박래되어 온 통로인 ‘바다’나 ‘항구’ 등의 공간을 묘사할 때보다 도시공간을 묘사할 때 보다 노골적인 회화화의 경향을 드러낸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마약 돌아 나가는 곳은 時計집 모퉁이, 낮에는 처마 끝에 달어맨 종달새  
란 높이가 都會바람에 나이를 먹어 조금 연기 끼인듯한 소리로 사람 흘러나려가  
는 쪽으로 그저 지출 지출거립데다.  
그 고달픈 듯이 깜박 깜박 졸고 있는 모양이-가여운 잠의 한점이랄지요-부칠  
데 없는 내맘에 떠오릅니다. 쓰다듬어 주고 싶은, 쓰다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올시다. 가엾은 내그림자는 검은 喪服처럼 지향없이 흘러나려 갑니다. 축축이  
젖은 리본 떨어진 浪漫風의 帽子밑에는 金붕어의 奔流와 같은 밤경치가 흘러  
나려갑니다. 길옆에 늘어선 어린 銀杏나무들은 異國斥候兵의 걸음제로 조용  
조용히 흘러 내려갑니다.

슬픈 銀眼鏡이 흐릿하게  
밤비는 옆으로 무지개를 그린다.

이따금 지나가는 늦인 電車가 끼이익 돌아나가는 소리에 내 조고만魂이 놀란  
듯이 파다거리나이다. 가고 싶어 따듯한 화로가를 찾어가고싶어. 좋아하는 코  
-란經을 읽으면서 南京콩이나 까먹고 싶어, 그러나 나는 찾어 돌아갈데가 있  
을나구요?

네거리 모퉁이에 씩 씩 뽑아 올라간 붉은 벽돌집 塔에서는 거만스런 XIII時가  
避雷計에게 위엄있는 손가락을 치여 들었소. 이제야 내 목아지가 쫄 뻗 떨어  
질듯도 하구료. 솔밭새 같은 모양새를 하고 걸어가는 나를 높다란데서 굽어  
보는것은 아주 재미 있을게지요. 마음 놓고 술 술 소변이라도 볼까요. 헬멧 쓴  
夜警巡查가 피일림처럼 쫓아오겠지요!

- 시 「幌馬車」 부분 -

이 시의 화자는 ‘시계집 모퉁이’를 돌아나가며 시계시간의 규율 속에서 살아가는 근대적인 공간에서 안식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홀러나라’는 하강 혹은 유동의 이미지는 시적 화자의 방황하는 모습을 암시한다. 화자는 길가의 가로수를 ‘異國斥候兵’으로 인식하거나 거만스러운 시계가 높은 곳에 매달려 자신을 굽어보는 근대적인 공간배치를 억압적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정지용의 시에서 근대적인 공간은 철저히 감시되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은 시계와 야경순사가 감시의 눈망울을 늦추지 않는 규율화 된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적인 근대상의 포착은 ‘마음 놓고 술 술 소변이라도 볼까요’라는 희극적인 언술을 통해 억압의 실상을 비켜선다. 시인은 이처럼 근대적인 공간에 대한 반응을 희화화 하면서도 동시에, ‘헬멧 쓴 夜警巡查가 피일림처럼 쫓아오겠지요!’에서처럼 감시당하는 삶의 공포와 불안감을 표출한다. 시적 자아는 ‘피일림처럼 쫓아온다는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인 공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의식을 영상적인 이미지처럼 가볍고 물질화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시인은 근대의 공포감을 일종의 위트와 익살로서 환치시키며 근대적 공간에 대한 환멸감을 드러낸다. 따라서 근대적인 교통수단인 전차에 ‘내 조고만 혼이 놀란듯이 파다거린’다고 진술하면서 시적 화자는 ‘황마차’라는 또 다른 이국적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환멸적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환멸적 주체는 ‘비날리는 異國거리를 嘆息하며 해매’(「조약돌」)는 이국에서의 타자화된 모습과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고향」)라는 조국에서의 타자화된 모습이 상충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식민적 근대주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근대문물에 대한 태도에서도 단순한 동경을 넘어서서 익살과 해학을 비애의 정서와 함께 담아내고 있다. 「과충류동물」, 「유선애상」, 「빨간 機關車」 등의 근대적인 문물을 시적 소재로 삼고 있는 시에서 이러한 태도는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정지용의 시에서 근대적인 주체가 인식하는 시간은 공간에 비해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 「幌馬車」에서 볼 수 있었듯이, 시인에게 근대적인 시간은 타율적인 삶을 강요하는 억압기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한밤에 壁時計는 不吉한 啄木鳥!  
나의 腦髓를 미신바늘처럼 쫓다.

일어나 쫓알거리는 「時間」을 비틀어 죽이다.  
殘忍한 손아귀에 감기는 간열핀 목아지어!

오늘은 열시간 일하였노라.  
疲勞한 理智는 그대로 齒車를 돌리다.

나의 生活은 일절 憤怒를 잊었노라.  
琉璃안에 설레는 검은 꿈 인양 하품하다.

꿈과 같은 이야기는 꿈에도 아니 하란다.  
必要하다면 눈물도 製造할뿐!

어쨌던 定刻에 꼭 睡眠하는것이  
高尚한 無表情이오 한趣味로 하노라!

明日!(日字가 아니어도 좋은 永遠한 婚禮)  
소리없이 옮겨가는 나의 白金체펠린의 悠悠한 夜間航路여!

- 시 「時計를 죽임」 전문 -

‘오늘은 열시간 일하였노라’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자이는 노동으로 점철된 근대적인 삶과 이를 강요하는 계량화된 시계시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계시간에 대한 비판의식은 ‘定刻에 꼭 睡眠하는것이 高尚한 無表情이오 한趣味로 하노라!’라고 역설적이고도 해학적으로 말하면서 시계를 근대적인 문명의 한 상징인 독일의 비행기 ‘체펠린’에 비유한다. 이처럼 정지용은 시계시간의 지배에 의해 살아가는 근대적인 삶에 환멸감을 드러낸다. 따라서 환멸적 주체는 서구적 근대가 강요하는 식민성을 자각하고 서구적 근대가 감시와 규율을 통해 인간을 억압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의 자각에서 탄생한다. 이처럼 식민적 타자성에 대한 모멸감과 근대의 시공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우리의 식민적 근대 주체는 환멸적 주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멸적 주체가 반문명과 탈속적인 공간으로서의 ‘장수산의 세

계와 만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추상적인 무시간성으로서의 절대 자연의 세계인 ‘장수산’은 근대성과 식민성으로부터 모두 비켜설 때 한국 근대시의 근대적 주체가 가닿을 수 있었던 실존적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멸적 주체가 ‘장수산’의 세계에서 보여준 극도의 감정절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표정이 아니었을까. 시인이 시집 『백록담』에서 보여준 초월적인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이러한 식민적 근대에 대한 환멸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근대시에 있어서 자연합일이나 자연회귀적인 정서의 표출은 서구적 근대를 정전으로 하는 식민적 근대에 대한 환멸감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 이성을 내세우며 규율권력을 통한 억압을 실천하려는 식민현실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분열적 주체가 놓인다면, 식민지적 타자성을 거부하는 또다른 대응방식으로 환멸적 주체가 놓일 수 있다 하겠다.

### III. 맺음말

일제강점이라는 피식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하는 식민잔재는 우리의 근대문학 연구에 있어서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탈식민성의 문제를 동시에 사유하게 한다. 근대는 하나의 보편적 전체성으로 인식될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지역에서 살아가는 근대인의 정신 속에는 보편, 중심 주체로서의 제국의 시선과 특수, 주변, 타자로 인식되는 피식민의 시선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인식론적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에 대한 논의도 이 인식론적 구획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이 어떻게 탈식민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상, 정지용은 분열적 주체와 환멸적 주체로 피식민적 정체성을 정립하면서 제국이 강요하는 식민현실에 나름의 대응을 보이며 근대성과 탈식민성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이들이 그려내는 주체는 상이한 문화적 요소들이 겹쳐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단순히 혼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갈등적으로 겹쳐지는 상황을 정직하게 포착함으로써 서구적인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복수의 근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향후 우리의 근대시에서 이러한 탈식민성의 양상

이 어떤 예술적인 저항으로 표출되는가를 살피는 연구가 진척된다면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과 탈식민성의 관련양상은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혼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탈식민성에 입각한 관점의 확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문화의 외장을 하고 문화적 제국주의가 무의식까지 공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식민적 타자성을 극복하고 제국에 저항하는 미적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논의가 아닐 수 없다. 다문화 시대의 진정한 열린 의식은 한편으로는 식민성에 저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배제가 아니라 공존의 방식을 찾아내는 데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근대문학에서 근대성과 탈식민성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내희, 「한국 근대성의 문제와 탈근대화」. 『문화과학』 제22호, 2000년, 여름호, 15~40쪽
- 강내희,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과 충격의 번역」. 『문화과학』 제31호, 2002년, 가을호, 74~97쪽
- 고부웅(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 고현철, 「한국문학의 탈식민주의 비평·연구사적 검토」. 『한국문학논총』 제30집 한국문학회 2002, 409~435쪽.
- 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김기림 전집2』. 서울: 심설당, 1988.
- 김승희, 「김수영의 시와 탈식민주의적 반(反)예술」. 김승희(편), 『김수영 다시읽기』. 서울: 민음사, 2000.
- 김유중·김주현(편), 『그리운 이름, 이상』. 서울: 지식산업사, 2004.
- 김학동(편), 『정지용전집』. 서울: 민음사, 1988.
- 노용무, 『김수영 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 고부웅(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 이상길, 「“인텔리 위안소”, 혹은 식민지 공론장의 초상」. 『문화과학』 제36호, 2003, 119~139쪽.
- 이승훈(편), 『이상문학전집』.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전규찬, 『포스트시대의 문화정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조해옥, 『이상 시의 근대성 연구: 육체 의식을 중심으로』, 서울: 소명 2001.
- 강상중, 이경덕·임성모(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서울: 이산 1997.
-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서울: 역락 2002.
- Ashcroft, Bill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이석호(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서울: 민음사, 1996.
- Deleuse · Gattari, 최명관(역), 『앙띠 오이디푸스』, 서울: 민음사, 1994.

### 국문 요약

이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이 어떻게 탈식민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상과 정지용은 각각 분열적 주체와 환멸적 주체로 피식민적 정체성을 정립하면서, 제국이 강요하는 식민현실에 나름의 대응을 보인 대표적인 시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시적 주체들은 상이한 문화적 요소들이 겹쳐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단순히 혼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갈등적으로 겹쳐지는 상황을 정직하게 포착함으로써 서구적인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복수의 근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 투고일 : 2006. 1. 2.
- 심사완료일 : 2006. 3. 2.
- 주제어(keyword) : 근대성(Modernity), 탈식민성(Postcoloniality), 근대시(Modern poem), 이상(Lee Sang), 정지용(Jung ji-yong)